

紅桃는 朝鮮 실존 名妓

本名 崔桂玉, 字는 楚月山

慶州서 東大 崔孝軾교수가 墓碑발견

○……흘러간 옛노래 「홍도야 우지마라」의 主人公 紅桃는 일제시대 유행가의 主人公이지만 朝鮮後期の 실존 名妓에 紅桃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비석과 묘가 慶州市道只洞 627 야산에서 東國大경주캠퍼스 崔孝軾교수(東國大 박물관장)에 의해 발견되어 풍류연구가의 관심꺼리가 되고있다.

화강암으로된 비석은 높이 1m20cm 너비 50cm 두께 50cm로 뒷면에 3백 88자의 비문이 새겨져있다. 비석이 세워진것은 紅桃사망후 28년이 지난 1851년(哲宗 2년) 8월 紅桃를 아끼던 풍류협객들이 세운것으로 기록돼있다. 紅桃는 1778년에 태어난 絶世佳人으로 20세때부터 노래와 춤에 독보적인 솜씨를 보여 장안에서 그를 따를 사람이 없었다는 내용과함께 당시 임금의 장인인 朴相公이 紅桃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오래동안 애첩으로 삼아 고향인 慶州에서 함께 살았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비명에 따르면 紅桃는 고향 慶州에서 풍류협객들의 연인노릇을 하다 45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다음의 글은 지난 8월16일자 中央日報 噴水臺 「風流時節」제목하의 칼럼기사이다.

비록 허리부러진 碑石이지만 妓生의 신분으로 태어난 紅桃의 일대기를 밝혀주고 있다. 본명은 崔桂玉, 字는 楚月山, 紅桃는 酒樓의 애칭이었던 모양이다.

1778년에 나서 12살에 벌써 詩와 붓글씨에 능통했다. 노래와 춤사위는 장안의 한량들을 매료시키고도 남을 만 했다. 임금의 장인인 朴相公의 바깥부인살이도 했던 홍도는 그 미모와 재능으로하여 當世 풍류객들의 代母가 되었던 가보다.

45세 나이로 세상을 마치자 장안의 풍류협객들은 碑銘을 짓고, 敎坊(기생학교) 동료들은 추렴을 해서 그를 기리는 비석을 세웠다.

지금 새삼스럽게 한 妓女의 碑銘을 놓고 감동할 이유는 없지만 옛시절 閑良들의 風流랄까, 늘 풍수에 맞는 생활은 오늘의 바삭바삭한 時俗으로는 한가닥 鄉愁를 자아내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엔 역사상 이름난 기생들이 적지 않았다. 임진왜란 무렵 晋州의 축석루에서 倭將을 부둥켜 안고



▲ 사진 : 경주에서 발견된 조선조후기에 실존했던 명기 紅桃의 묘비인데 누구의 소행인지 모르나 비가 두동강나 있어 애처롭기만 하다.

南江에 몸을 던진 論介는 이미 樹州의 詩를 통해 민족의 戀人이 되었다. 平壤기생은 평판이 나 있지만 桂月香이라는 여자는 임란때 평양에 입성한 왜군들에게 묶여 생활하면서도 薦을 날려 왜군들의 동정을 우리 義兵들에게 알려준 義妓였다.

三·一獨立만세때는 海州에서 다섯명의 기생들이 붓을 들어 自作 독립선언서를 쓰고 만세를 부른 일도 있었다. 越姬, 月仙, 海中月, 馨姬, 彩珠는 모두 그 이름들이다.

義妓가 아니더라도 옛날의 妓房여자들은 詩와 글씨에 능하고, 노래와 춤으로 멋을 알았다. 黃眞伊는 기녀의 신분이었지만 재색과 琴律, 漢詩, 시조, 歌劇을 즐기고, 소복단장을 한 수수한 매무새와 예의를 잃지않았다. 徐花潭과의 플라토닉 러브는 꿈만 같은 얘기다.

성과 미모를 한낱 값싼 상품이나 탐욕의 도구로 여기고, 不道德과 暴力의 온상으로 삼는 요즘의 세태와는 너무도 격이 다르다.